

[경제]

부동산 광풍 '금리 인상' 대출

콜금리 인상 불구 11월 대출액 691조…한달새 11조 5천억 늘어

은행권의 11월 대출 증가액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했지만 현재의 대출금리가 자금 수요를 억제할 만큼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은 역시 이같은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 내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은은 따르면 은행권의 원화총대출은 11월 말에 691조 6천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11조 5천억원 늘어났다. 이

는 2002년 3월에 12조 9천억원이 늘어난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은행권의 월별 원화대출 증가액 평균은 5조 6천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월별 평균치인 4조원 대비 40% 늘어난 수준이다.

콜금리 인상은 통해 대출금리가 올랐지만 시장 주체들은 높아진 금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 특히 마지막으로 콜금리가 인상됐던 지난 8월 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9월 은행권 원화총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원, 10월 8조원, 11월 11조 5천억원으로 모두 올해 평균치인 5조 6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최근 1년간 1.25%포인트의 콜금리 인상이 단행됐지만 시장 주체들은 부동산·주식 등 실물자산의 예상수익률에 비해 높아진 지금 조달 비용에 대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9~11월에 은행 대출이 급증한 것은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한두 달 뒤에 은행의 주택대출이 급증한다"고 말했다.

통화지표의 하나인 광의통화(M2)도 10월에 작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며 11월에는 11%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3년 3월 1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역시 금리 인상에도 시중유동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

내는 지표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증가가 한후 가계·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금융기관 외화대출 증가 등도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12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통화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발언을 2~3차례 하면서 "12월에는 좀 더 느려질 것"이라거나 "좀 더 느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을 '대출 증가 속도가 느려지지 않으면 한은이 콜금리 인상이나 지급준비를 추가 인상 등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완곡하게 돌려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업기계화 3조8천억 투입

농림부, 2011년까지 5년간

농촌의 농기계 보급과 안전관리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3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농림부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제6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추진결과 농기계 이용비 절감과 밭작물용 기계화 개발·실용화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6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관리로 비용절감 ▲농업인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인프라 구축 및 지자체의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으로 정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농기계 비용절감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29개 과제를 선정해 5년간 총 3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신한은행 중단…우리은행도 검토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등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영향으로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또 한차례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각 지점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상담 및 취급 억제 통보'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승인 기준으로 매매관련 잔금대출 때 매매계약서 제출을,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때에는 전세계약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료를 확인토록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7일 금융당국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나서자 신규대출을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잔금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본점 승인을 거쳐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주인을 지켜보면서 신규 대출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자 우리은행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물릴 것에 대비해 '타행 대환대출' 중단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대해서도 본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 등은 당장 대출 제한이나 금리 추가인상 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한, 우리은행의 대출 규제로 이들은 행으로 대출 수요가 물릴 가능성이 있어 주택대출 규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주택대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특혜 대출·선심성 해외출장·자녀 입사우대…

공기업 '멋대로 경영' 여전

정부투자기관 평가단

일부 정부투자기관들은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 선심성 해외출장, 자녀 입사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특혜대출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등 '용감하게' 버티는 행태도 나타났다. 또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무와 관련성 있는 비상임이사를 찾아보기 힘든 기관도 있었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기업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도 발견됐다.

일부 기관은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증대 등의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인 정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도 갖고 있었다. 타당성이거나 근거가 없는 계획을 세워놓는 정부투자기관들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각계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은 14개 정부투자기관들의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이같이 평가했다.

경영평가단은 보고서에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경우 1인당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금이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주택자금 등의 대부이자율을 국 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2조8,621억원 증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폭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이 잇따라면서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년새 308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씨브'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전국 아파트 573만4천341가구의 시가총액은 1천401조 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전국 552만8천238가구의 시가총액 1천92조5천196억원보다 308

조1천512억원(28.2%) 증가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1년간 아파트 가구 수가 8천642가구(2.8%)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2조8천621억원(12.4%)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올해 시가총액은 25조8천789억원으로 전국 아파트의 1.9% 수준에 머물러있다.

광주는 올해 신규 아파트가 8천425가구(4.2%) 증가하면서 시가총액이 19조 7천541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7조1천560억원)보다 2조5천981억원(15%) 증가한 것이나 전국 시도별 대비 시가총액은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 올해 시가총액이 6조1천248억원으로 지난해 5조8천606억원보다 2천642억원(4.5%) 증가하는데 그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가총액은 1천42조8천518억원으로 전국 아파트의 74.4%에 달했다. 또 '벼슬세븐'의 시가총액은 430조9천345억원으로 전국의 30.8%를 차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발전소 39기 추가 건설

2020년까지 29조원 투자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29조원 이 투자돼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등 39개소가 추가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3천442만㎾의 전력이 추가

로 확보돼 2020년에는 총 9천428만㎾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약 15%의 설비예비율을 유지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원부는 11일 오는 2020년까지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계획을 담은 '제3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량은 올해 3천 530억8천600만㎾h에서 2010년 4천166억2천300만㎾h로 연평균 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다 이후에는 2015년까지 연평균 1.8%, 2020년까지는 연평균 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전력수요는 올해부터 연평균 2.5%의 증가세를 보이며 총 4천 785억5천500만㎾에 달해 올해의 약 1.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니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애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태봉	사무직/총무 사원 모집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2-511-6470
(주)유진시스템	영상, 음향시스템 구축 전문기사 채용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12/14	062-383-1108
(주)HRN	[광주, 순천, 목포] SK텔레콤 통신 기술직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15	062-529-2671
기운신용정보(주)광주지점	채권 추심원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226-7191
(주)디지털정보통신	사무관리/영업기획/고객관리 사원 모집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972-6568
(주)삼성홀ディング	경리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671-4125
남도일보	신문광고 영업사원 모집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670-1023
동명산업·정보(주)	IT관련 영업 및 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15	062-672-8000
남해철강(주)	설계직(구구조를 제작 및 설치)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7년	회사내규	12/16	062-943-8676
(주)대경전공	건축설계직/경리/회계/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20	062-383-4010
(주)삼호축량	토목설계 신입/경력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20	062-376-8225
정월교육문화(주)	친절한 원장원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20	062-514-7900
(주)드림시아비	MDI(상품관리) 및 사무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528-2876
광주정보문화사업진흥회	공공기관 이전대비 수요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350-2403

<광주정보코리아 512-6210 제공>

KT&G, 담배 '클라우드나인 1MG' 출시



KT&G가 8번짜 담배 1mg 이하 신제품 '클라우드나인 1MG'를 13일 선보인다.

'클라우드(CLOUD)'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천국편'에서 유래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